

## ‘층간소음’ 가족 4명 사상케한 30대 무기징역 선고

순천지원 “2명 살해 · 2명 중상 입힌 참혹한 범행”

“사회 격리된 상태서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라”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제1형 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글도 등산용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으며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

음을 지켜보면서도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렸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심신 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후 자수했기에 감형해 달라는 A씨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공판 담당 검사는 “피고인은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범행 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한 30대 A 씨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아무 말 없이 경찰관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정에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소음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어 “살해당한 장면을 목

격한 피해자 부모는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이들은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될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돼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계획 범죄였다면 도주로를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신고해 자수했다. 자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아래층으로 9년 정도 살았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분노가 폭발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계획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감형을 부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간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천기만 기자

## 전남산 원유 검사강화…부적합 유통 차단

전남동물위생시험소, 국가잔류물질 검증 체계 상시 가동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원유 국가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빙름없이 운영해 부적합 원유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동물용의약(외)품 사용 시 사용 기준을 정확히 준수하고, 사료나 축산 시설·장비를 꼼꼼히 관리해 곰팡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이용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현재 식육과 식용란도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며 “원유도 빙름없이 검사해 안전하고衛생적인 우유를 도민에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원유 정밀검사에 들어가 그동안 환생제·잔류 부적합 1건을 확인해 원유 5톤을 전량 폐기, 시중 유통을 막았다.

/권현안 기자

## “하얀 가운의 시민군” 광주서 5·18 의료인 증언대회

20일 구술증언 집담회…동고송·의사협회 등 참여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부상 당한 시민 등을 현신적으로 돌본 의료인들의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된다. 17일 5·18 기록관에 따르면 오는 20일 기록관 내에서 5·18 의료인 활동 구술증언집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집담회는 인문연구원 동고송과 광주시 의사협회가 5·18 기록관과 함께 5·18 의료인 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광주시 의사협회를 비롯한 50여 의료단체가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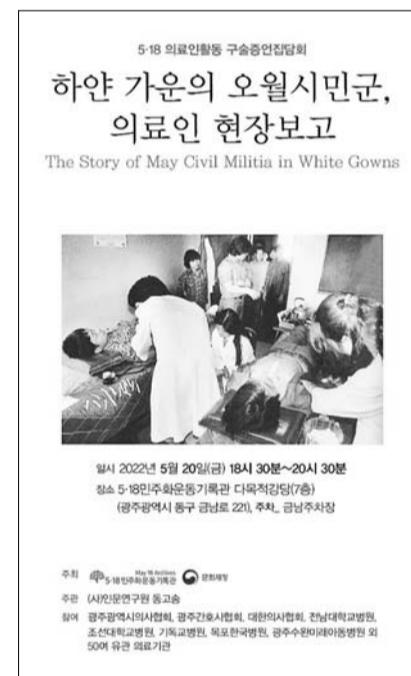
5·18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과 총격에 의해 쓰러진 시민들이

병·의원에 실려오면 의료진들은 너나할 것 없이 위급한 부상환자를 살리기 위해 피의 현장을 지켰다. 그 해 오월을 지킨 의료인들을 그래서 ‘하얀 가운의 오월시민군’이라 부른다.

이날 집담회에는 당시 김성봉 광주 기독병원 응급실장, 문형배 전남대 의대 교수, 김영진 전 전남대병원장, 손민자 전대병원 간호감독, 안성례 광주기독병원 간호감독, 오경자 조선대 간호부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5·18 기록관은 앞으로 보다 많은 의료인의 체험과 활동을 조명하는 집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자



한의과, 치과 진료와 건강진단서(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같은 제증명 발급 업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내과 대면진료는 당분간 오전 9시 ~낮 12시에만 가능하다.

/이달호 기자

## 농경원·농정원, 정보공유로 ‘농정통계 정확도’ 높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정보공유 강화를 통해 농작물 재배 관련 실측조사 정확도를 높이게 됐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식융합본부와 농정통계 정보 교류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농경원 농업관측센터는 농정원에서 운영 중인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을 활용해 농작물 재배·출하면적과 실측조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주요 채소류 주산지인 전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항공 활용성을 비롯해 수시로 갱신된 최신 ‘팜맵’을 실측조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농정원은 농경원이 제공한 고해 상도 항공영상과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팜맵’ 갱신을 추진하게 된다.

산지 정보 수집 고도화를 추진 중인 농경원 농업관측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항공촬영 방식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출하면적 조사와 현장 방문 중심의 실측조사 체계를 도입했다.

## ‘수자원 수질관리 디지털 전환’ 속도

농어촌공사, 디지털 전환 위한 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



한국농어촌공사가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용수 실시간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가 최첨단 수질측정 센서 기술을 보유한 오스트리아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수질 관리 분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어촌공사는 17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수질관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문가 초청 국제 워크숍을 열고 디지털 기반의 수질자동측정 장치 설치 사례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데이터 기반의 농촌용수 수질관리를 실현해 줄 센서 기술이 접목된 수질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규진 농어촌공사 수

자원 관리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볼프강 커스팅거 상무참사관과 기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워크숍에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농촌용수 실시간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이 시스템은 90개 저수지의 253개 지점에 설치한 센서가 핵심이다. 수심과 수온 등 9개 항목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은 지점당 발생되는 연간 약 5만 2000여 개의 수질 측정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

이날 오스트리아 크리스토퍼 바그너 박사는 영국을 비롯한 7개국에 설치된 디파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센서 방식의 수질자동측정 장치 사례와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김규진 수자원관리 이사는 “최첨단 수질측정 센서 기술을 보유한 오스트리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농업·농촌의 수자원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기호 기자

## 서구보건소 23일부터 진료 등 일반업무 재개

서구보건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소세와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이후 2년이 넘도록 중단됐던 일반진료와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를 오는 2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서구보건소에서는 임상병리검사·방사선검사를 포함한

한의과, 치과 진료와 건강진단서(보건증),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같은 제증명 발급 업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내과 대면진료는 당분간 오전 9시 ~낮 12시에만 가능하다.

/이달호 기자

**농장직영** **전남 맘생이당**

예약문의 : 010-3925-3842

농장직영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

어서오십시오

전남 맘생이당

진짜 맛집

